광주교총 회장 보복 인사 논란

시교육청 "교총 파견은 편법…유안초 돌아가라" 복귀명령

송길화 회장 "장휘국 교육감 정책 비판한 때문" 강력 반발

장휘국 교육감

송길화 교총회장

광주시교육청이 파견기간이 10개월여 남은 광주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 회장에 대한 파견을 전격 취소하고 교단으로 복귀하도록 해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교총은 그동안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현장이 편향된 전교조의 이념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등 날선 대립을 해왔기 때문이다.

8일 광주교총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교육청이 파견형식으로 근무해온 광주교총 송길화 회장의 현임지(광주교총) 파견을 취소하고 유안초등학교로 원직복귀 명령했다. 평교사 출신으로 광주교총 회장에 당선된 송 회장은 전임 안순일 교육감 시절인 2009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파견 인사발령을 받아 회장 업무를 수행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파견에 대한 법적인 명분이 불분명해 현재 파견 신분은 편법이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총의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령(7조1항)에서 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연구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교총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교총 탄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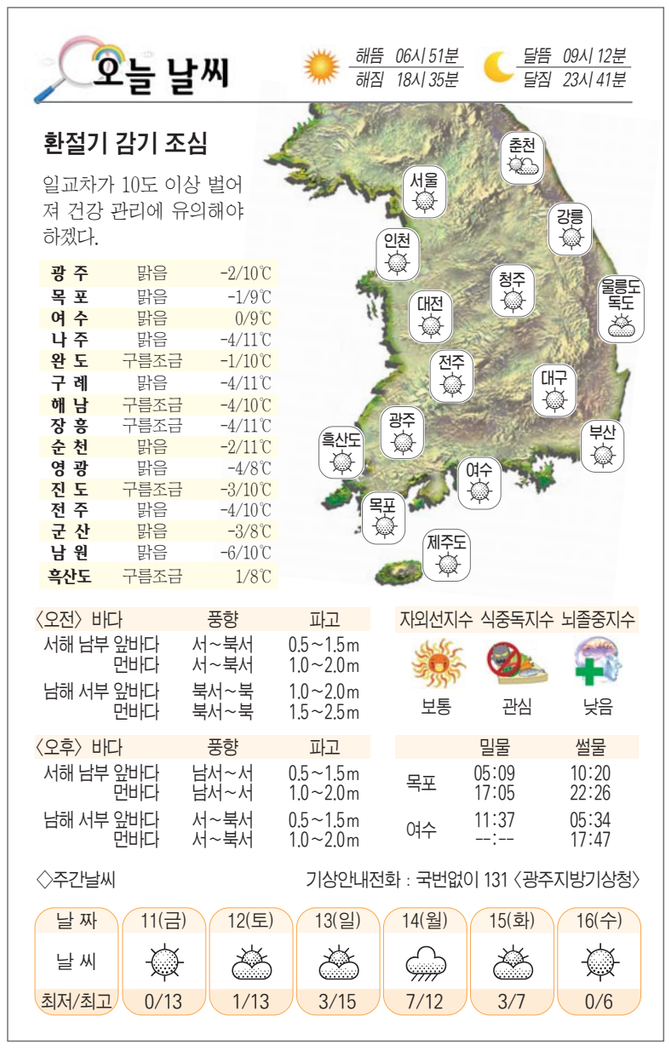
광주교총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송 회장이 일선 학교로 돌아갈 경우 평교사로서 담임이나 수업 등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교총 회장직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총은 또 전교조 출신들이 시 교육청에 편법 파견돼 있는데도 교총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적절차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파견을 철회한 것은 특정이념에 경도된 편협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광주교총의 위상과 역할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광주교총 전 회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교사 1만3149명 가운데 교총 회원은 3946명(30%), 전교조는 3853명(29.3%)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불법체류 베트남 노동자 투안씨의 눈물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 어떡해 출산 돕게 강제출국 미뤄줘요"

"불법 체류자 신분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강제 출국되더라도 아내 출산만은 지켜보게 해주세요."

불법 체류로 검거돼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출산이 임박한 아내와 분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며칠만이라도 강제출국을 연장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외국인노동자 투안(29)씨. 그는 비자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광주하남산단의 한 업체에서 일하다 지난 8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적발됐다.

현재 투안씨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갇혀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5일 내(오는 22일까지)로 강제 출국 조치된다.

투안씨는 출산을 3주 앞둔 베트남 출신 아내 누엔(가명·27)씨와 함께 살고 있다. 그의 아내 역시 불법체류자다.

아내는 남편 투안씨가 붙들리기 직전 병원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친구로부터 남편이 검거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정신이 아득해졌다. 남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신도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발만 굴러야 했다.

투안씨는 지난 2006년 10월 단기비자로 입국해 광주하남산단에

하남산단서 만나 동거
출산 3주 앞두고 붙들려
만삭 아내 비행기 못타

서 일을 하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아내를 만났다. 본국에 있는 양가 부모의 동의를 받고 회사 근처에서 신접 살림을 시작했다.

투안씨 부부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대로 결혼식을 치르자고 약속했다. 또 아이는 안정적으로 베트남에 돌아간 뒤 가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임신 소식을 접하면서 아이를 낳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

누엔씨는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산할 때까지 만이라도 남편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둘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데다 남편과 동거녀로 인지될 뿐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누엔씨는 남편이 강제출국 당할 때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만삭의 몸이라 비행기를 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국만리 타국에서 혼자 애를 낳는 것도, 출산 후 혼자 귀국하는 것도 모두 두렵기만 한 누엔씨의 하루하루는 눈물과 한숨이다.

광주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투안씨는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동거녀가 임신했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누엔씨 역시 강제출국조치를 해야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출산과 몸조리를 한 뒤 자진 출국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이천영 소장은 "법에도 인정이 있는 만큼 정부가 투안씨가 부인의 출산을 돌본 뒤, 귀국토록 조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공중화장실 봄맞이 대청소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북구 지역 공중화장실(52개소) 일제 봄맞이 대청소에 들어간 가운데 9일 무등경기장 앞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담양 '얼굴 없는 기부천사' 또 1억

郡, '등불장학금' 처리

담양군의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지난 2009년 토마토 상자에 2억원을 담아 담양군에 보낸 데 이어 또다시 1억원을 전달했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중절모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군청 뒷편 주차장 인근을 지나던 주민 송모(30)씨에게 군청 행정과에 전달해 달라며 양주상자 하나를 주고 갔다. 군은 지난 2009년 토마토 상자에 장학기금을 담아 전달한 기부자가 또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 2009년에 2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2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상자에는 "등불장학금 관계기관과 담당직원의 수고에 감사. 선발학생은 1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해 2년이상 지급을 희망합니다. 담양군민"이라는 A4크기 메모지와 함께 5만원권을 100장씩 묶은 돈뭉치 20개(1억원)가 담겨 있었다. 〈사진〉

담양군은 10일 오전 11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불장학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등불장학금'은 익명의 기부자 뜻을 존중, 관내 7년 이상 주소를 둔 담양군 의용소방대원 중 5년 이상된 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